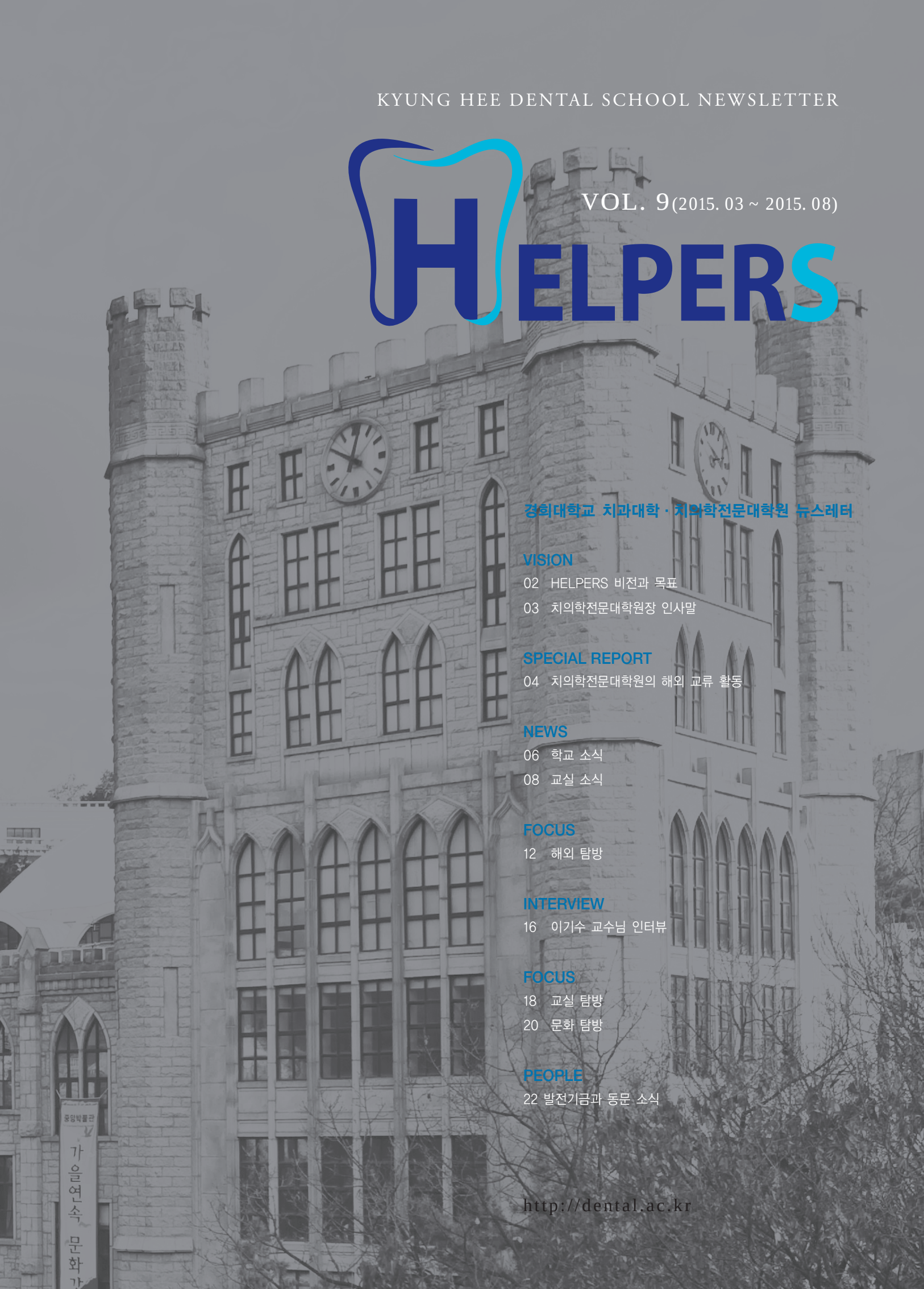
KYUNG HEE DENTAL SCHOOL NEWSLETTER

HELPERS

VOL. 9 (2015. 03 ~ 2015. 08)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VISION

02 HELPERS 비전과 목표

03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인사말

SPECIAL REPORT

04 치의학전문대학원의 해외 교류 활동

NEWS

06 학교 소식

08 교실 소식

FOCUS

12 해외 탐방

INTERVIEW

16 이기수 교수님 인터뷰

FOCUS

18 교실 탐방

20 문화 탐방

PEOPLE

22 발전기금과 동문 소식

http://dental.ac.kr

HELPERS

최근 국내외 대학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단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가치를 마련하고자 이전까지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수정 보완 하면서 비전을 '존경하는 글로벌 치과의 양성'(Global eminence founded on professionalism and respect in oral health and science)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서 Global Eminence를 치의학 분야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확고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환자와의 상호간에 존경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s)로서 Humanism(인본주의), Esthetic(개성과 조화), Leadership(지도력), Progressive spirit(진취성), Excellence(우수성), Responsibility(책임감), Stewardship(봉사정신)등의 7개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HELPERS라는 로고로 완성하였다. HELPERS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과의사로서의 성장 발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문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꾸어 가야 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의 힘찬 도약을 위해 "Let's go Global HELPERS!"

교육목적 우수한 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의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목표
1. 치의학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태도를 기른다.
3.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관, 인간성을 함양한다.

HELPERS vol.9
발행인 박영국 | 발행처 치의학전문대학원 | 발행일 2015년 8월 31일 | 편집장 박기호 | 편집위원 노대현 장석우 강윤구 이재형 이정우 안효원 조영아 백장현 김동찬 조인숙
이 잡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허락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립대학 중 최초로 만들어진 치과대학으로 50년 역사를 돌아보며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영국 원장

HELPERS 9호가 발간되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소식과 함께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 이념 하에서 구강보건을 통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에 헌신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 교과과정을 설계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성, 즉 "Professional Identity"를 개발함으로써 자신보다는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품성과 이타주의적 전문직업성을 일깨우는데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의학은 그 특성 중 하나로서 통제되지 않은 상황과 예측할 수 없는 임상적 불확실성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치의학의 학문적 수월성 못지않게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와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인성을 일깨우고, 사람을 돌보는 인간애를 가진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 대학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정신입니다.

최근 수 년 동안 실력 있고 열정이 있는 교수들이 부임하여 기초학문과 임상 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졌으며 인문사회 치의학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졸업 후 사회의 리더로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치의학교육학교실이 개설되고 자율학습실이 개관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더욱 향상되는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우리 대학은 6년제 치과대학으로 환원되면서 13년 만에 치의예과 신입생의 모집을 시행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새 식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변화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학의 위상을 더욱 높여 도약의 계기가 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017년은 우리 대학이 개교 5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사립대학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치과대학으로서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치의학의 성장을 주도한 역사를 돌아보며 이를 기념하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치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사업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하는 교내 구성원과 동문, 학부모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경희대학교는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치과대학도 국내의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수월성을 신인받는 대학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의 여러 치과대학 및 병원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동지역과 동남아 여러 대학들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 치과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를 꾀함으로써 위상 제고를 위한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자 합니다. 동문여러분과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 그리고 우리 대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박영국

치의학전문대학원의 해외 교류 활동

경희대학교는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각종 대학 평가에서 국제화 부분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도 국내의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우월성을 인정받는 대학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일본의 여러 치과대학 및 병원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중동지역과 동남아 여러 대학들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UCLA

2010년 8월 25일 미국 UCLA 치과대학 (학장 박노희 교수)과 상호교류를 위한 자매결연(MOU 양해각서)을 체결하였다. 양 교간에 학생 및 교수의 파견과 최신정보의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는 교수진, 학위 그리고 특정 분야의 교육, 연구 그리고 봉사활동 책임자의 방문, 졸업 후 교육 및 수련과정의 협력, 상호 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 회의, 심포지엄 또는 학술(과학적) 모임의 조직, 학문적 정보 및 자료의 교환,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재학생, 졸업생, 수련의 교환, 공동연구 프로그램 및 협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2013년에 UCLA 치과대학 박노희 학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가졌다. 먼저 경희대 치전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Antiviral Agent'를 주제로, 그리고 교수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Accreditation Process'를 주제로 미국의 CoDA 인증 과정을 소개했다. 2013년에는 교정과 김수정 교수가, 2014년 치주과 강경리 교수가 2015년에는 보철과 안수진 교수가 1년동안 Research Scholar로 UCLA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매년 수명의 학생들이 UCLA Observer

program에 참여하고 있다.

후쿠오카 치과대학

2005년 2월 28일 후쿠오카 치대와 상호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12월 18일 후쿠오카 치대 학술대회에 박상진 교수, 김여갑 교수, 우이형 교수(연자), 최영철 교수(연자)가 참석하였다. 2007년 10월 8일 후쿠오카 치대의 교수 2명, 학생 5명이 본교를 방문하였으며 2007년 12월 24일 본교 교수 2명, 학생 6명이 후쿠오카 치대에 파견되었다.

2011년 10월 4일 후쿠오카 치대의 교원 4명 학생 4명이 본교를 방문하여 10월 7일에 본교와 후쿠오카 대학의 협정식이 있었다. 2013년 1월 27일 본교 교원 1명 학생 4명이 후쿠오카 치대에 파견되었으며 4월 2일에 후쿠오카 치대 교원 1명, 학생 4명이 본교를 방문하였다. 2014년 2월 2일 본교 교원 1명, 학생 5명이 후쿠오카 치대에 파견되었으며 4월 28일에 후쿠오카 치대 교원 1명, 학생 6명이 본교를 방문하였다. 2015년 2월 2일 본교 교원 1명, 학생 6명이 후쿠오카 치대에 파견되었다.

오우대학

오우대학과는 매년 여름방학기간 중 학생지도주임 주관으로 시작한 운동 동아리간의 친선경기를 통해 자매결연을 이어왔으며 배구,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동아리등이 매년 번갈아 상호방문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운동경기 교류 뿐만 아니라 학생학술교류를 본교에서 제안하였다.

2010년 8월 2일~8월 5일에 배구팀의 운동교류와 학술강의 교류을 위해 교수 2명(이성복, 김규태 교수) 와 학생 8명이 오우 치대를 방문하였다. 2011년 일본 지진으로 인해 교류가 일시 중지되었으나 2012년 8월 6일 ~ 8월 10일 오우대학 학생 7명, 교수 1명이 본교를 방문하여 학술교류를 하였다. 이후 매년 본교와 오우대학을 번갈아 가며 학술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오사카 치과대학, 상해 교통대학

2010년 11월 23일 ODU, SJTU(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KHU 치대가 Joint Scientific Meeting을 ODU 주최로 개최 (박영국, 박용덕 교수 발표)하였으며 3개 대학이 MOU를 체결하였다. 교수/연구자/학생교류를 위해 매 2년마다 3개 대학이 번갈아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기로 하였다.

글 · 편집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이덕원, 치과교정학교실 박기호

2015학년도 1학기 외래교원 위촉

2015학년도 1학기 외래교수를 위촉하였다. 위촉된 외래교수는 신규 24명, 재위촉 207명을 포함한 총 231명이다. 원내생에 대한 강의와 임상실습지도 및 본원의 대외 위상 재고를 위한 외래교원으로 위촉기간은 2015년 3월 0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다.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원 인사(2015. 3. 1. 부)

해 외 장 기 연 수 : 치과보철학교실 안수진 조교수, 치주과학교실 신승일 부교수

해외장기연수 복귀 : 치과보존학교실 김선영 부교수, 악안면생체공학교실 황유식 부교수

승 진

-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권용대 부교수 → 교수
- 치과교정학교실 김성훈 부교수 → 교수
- 치과교정학교실 박기호 조교수(A) → 부교수
- 치과교정학교실 강윤구 조교수(A) → 부교수
- 악안면생체공학교실 황유식 조교수(A) → 부교수
-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오주영 조교수(B) → 조교수(A)
- 치과교정학교실 안효원 조교수(B) → 조교수(A)
- 악안면생체공학교실 문지회 조교수(B) → 조교수(A)

신임교원

안면통증구강내과학교실 강수경 조교수(A)
치의학교육학교실 방재범 조교수(A)

2015학년도 상반기 전체교수 워크샵 개최

- 일 시 : 2015년 3월 7일(토)
- 장 소 : 치과병원 지하강당
- 주 제 : Post 1주기 치의학교육인증평가 사업설명
  Post 1주기 치의학교육인증평가 대비전략 및 영역별 준비사항 설명
  2015학년도 신규 임용 교수 소개 및 학사일정 안내

신입생 대상 구강검진 봉사활동 실시

2015학년도 신입생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 일 시 : 2015년 3월 10일(화) ~ 13일(금) 08:00~18:00
- 장 소 :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內
- 대 상 :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학부 신입생
- 목 적 : 학부생의 구강건강증진 및 원내생의 원활한 환자수급

일본 후쿠오카 치과대학에서 본교 방문

- 방문일정 : 2015년 3월 8일(일) ~ 15일(일) [7박8일]
- 방문인원 : 학생 4명 (Watanabe Risa, Anzai Hiromasa, Nishioka Kie, Yoshida Waka)
- 목 적 : 일본 자매교와의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의 기반마련
  축적된 선진연구기술과 자료를 공유함으로서 본원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
  해외 우수대학과의 국제교류를 통한 본원의 대외 위상 제고

2015학년도 상반기 전체교수 워크샵 개최

- 일 시 : 2015년 8월 29일(토)
- 장 소 : 광릉 평화복지대학원
- 주 제 : 인증평가 각 영역별 보고/영역별 위원장
  의학계열 교수의 자기성찰/(특강) 이무상 교수
  중장기 발전계획 분임 토의 및 발표 토론

동대문구 청소년 의료진료 체험학습 진행

- 일　　시 : 2015년 5월 9일(토)
- 주　　관 : 동대문구 보건소
- 대　　상 :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약 40명)
- 진　　행 : 최병준 교수
- 목　　적 : 병원 및 의학계열 협력체계 구축으로 청소년들에게 의료(의학, 한의학, 치의학)진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의료직업에 대한 이해와 미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함

2015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원식 개최

- 일　　시 : 2015년 7월 24일(금)
- 장　　소 : 치과병원 지하강당
- 참석대상 : 원장, 부원장, 강동경희대치과병원장, 치의학교육실장, 동창회장, 4학년대표, 3학년 전체 및 학생지도실장
- 목　　적 : 3학년 학생들이 이론으로 배운 것을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실습하며 치과의사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2015학년도 전국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연합 축제

- 일　　시 : 2015년 5월 8일(금) ~ 9일(토)
- 장　　소 : 원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
- 참가대상 :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 및 교수
- 행사내용 : 구강보건 교육 워크샵, 구강보건 교육코너 운영, 각종 페스티벌, 각종 체육경기
  각 학교 동아리 공연, 연예인 초청 공연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자율학습실 (Creative Study Center) 개관식 시행

- 일　　시 : 2015년 8월 27일(목) 16:30~17:30
- 장　　소 : 치의학관 자율학습실
- 목　　적 : 학생 자율학습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관식을 시행함
  자율학습실 개관 목적과 취지를 소속 대학 구성원과 공유함
  국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수와 학생 상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함

구강생화학 · 분자생물학교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Development of in vitro PIK3C3/VPS34 complex protein assay for autophagy-specific inhibitor screening" Anal. Biochem. 등 SCI급 4편 게재; "자가포식 특이적 억제제 발굴을 위한 스크리닝 방법" 국내특허 등록

■ 학회발표

– "in vitro PIK3C3/VPS34 complex proetin assay autophagy-specific inhibitor screening", 2015 Biotech congress, China, 포스터 발표; "AMPK/mTORC1 connetc cellular energy status to autophagy", Autophagy Symposium 구두발표

구강생리학교실

■ 논문발표 및 연구활동

– 노대현 교수, "Microglial interleukin-1β in the ipsilateral dorsal horn inhibits the development of mirror-image contralateral mechanical allodynia through astrocyte activation in a rat model of inflammatory pain." (Pain. 2015 Jun;156(6):1046-59)등 논문 4편 발표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 논문발표 및 연구활동

– 김은철 교수, "Anti-inflammatory effects of glutamine on LPS-stimulated human dental pulp cells correlate with activation of MKP-1 and attenuation of the MAPK and NF-κB pathways." (Int Endod J. 2015 Mar;48(3):220-8) 등 논문 12편 게재

■ 학회발표

– 김은철 교수,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학술대회 (전북대, 2015. 5. 30-31) 포스터 발표 (15건), 3rd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 특강 발표(2015. 5.29-30 세종대)

악안면생체공학교실

■ 교실동정

– 치전원 후쿠오카치과대학 학생교류 인솔교수 (권일근 교수)

– Department of Bioengineering, The Geroge Washington University , NW Washington, DC 20052, USA : Postdoctor (허동녕 박사)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은나노입자–키토산 나노섬유의 제조방법 및 금나노입자를 포함한 수화젤 및 그 제조방법 등 10건 특허 출원

– Biofunctionalized Titanium with Anti-Fouling Resistance by grafting of Thermo-Responsive Polymer Brushes for Prevention of Peri-implantiti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B, IF = 4.726) 외 SCI 논문 5편 게재

– 이진용, 문지회 교수 "In vitro effects of N-acetyl cysteine alone and in combination with antibiotics on Prevotella intermedia" (J Microbiol 2015;53:321-9) 외 국제 SCI 2편 발표

– 이재형 교수, "Genomic analysis of ADAR1 binding and its involvement in multiple RNA processing pathways" (Nat Commun. 2015,6:6355) 외 국제 SCI 1편 발표

■ 학회발표

• 국내 학술대회

– 한국생체재료학회 제 10차 춘계 학술대회 2015, Daegu, Korea, 2015. 03

• 국제 학술대회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medicine and Nanobiotechnology 2015, Hangshou, China, 2015. 04

– Society for biomaterials 2015, Charlotte, USA, 2015. 04

– The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lecular Electronics and Devices 2015, Seoul, Korea, 2015. 05

– International Forum on Funnctional Materials 2015, Jeju, Korea, 2015. 06

–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inspired and zwitterionic materials 2015, Seattle, USA, 2015. 08

■ 연구과제 수주

– 2015년 단년도 과제[사업비 : 6억원 규모]인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는 양자점 기반 암세 포 표지기술 개발 연구에 2세부로 참여

– 생체분자의 표면 도입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성 나노입자를 이용한 그래핀 양자점 개발

– 경희대학교 의공학교실, 한국교통대학교와 공동 연구

예방/사회치과학교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The effect of polymerization conditions on the

amounts of unreacted monomer and bisphenol A in dental composite resins" (Dent Mater J. 2015 Aug 31;34(3):327-35) SCI 1편을 발표하였다.

- "New Tooth Brushing Campaign about 1-2-3" 등 국내 1급 학진 등재지에 6편을 발표하였다.

■ **연구과제 수주**

- "학교구강보건실과 양치시설 효용성연구(보건복지부)" 연구수주

■ **학회발표**

- The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Performance Liquid Phase Separations (21th-25th, June, 2015, Geneva, Switzerland. poster 4건 발표)
- 2015 Korean Academy Of The Clinical & Preventive Dentistry (April, 19, 2015. poster 6건 발표)

영상치의학교실

- 2015년 3월 21일 영상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강주희 선생이 구연발표를 하였다.
- 2015년 6월 27일 경희대학교 영상치의학교실 40주년 행사를 하였다.
- 2015년 8월 26일~29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국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에서 최용석 교수와 오송희 선생이 구연발표, 강주희 선생이 포스터발표를 하였다.

치과교정학교실

- 2015년 3월 2일 부로 김성훈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주임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정교수로 승진하였다.
- 2015년 3월 2일 부로 박기호 교수와 강윤구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 2015년 3월 6일~9일 김수정 교수가 미국 Michigan주 Ann Arbor에서 열린 제42회 Moyers Symphosium에 참석하여, 'Timing of initiating tooth movement into bone-grafted surgical alveolar defects in beagles'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3월 13일 박영국 교수가 한국임상교정의사회(KSO)에서 'Accelerating tooth movement with PBM'에 대해 강연하였다.
- 2015년 3월 31일 박영국 교수가 International college of Dentists(ICD)에서 'Education of future dentists'에 대해 강연하였다.
- 2015년 4월 1일 부로 김성훈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 2015년 4월 3일 박기호 교수가 덴티움에서 'Digital dentistry in Orthodontics'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4월 12일 김수정 교수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개최된 대한양악수술학회에서 '교정치료, 턱교정 수술에서 호흡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5월 1일 강윤구 교수는 대한양악수술학회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 2015년 5월 16일 박영국 교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115회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cs(AAO)에서 'Effect of PBM on tooth movement'에 대해 강연하였다.
- 2015년 7월 3일 박영국 교수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World Society of Lingual Orthodontics(WSLO)에서 'Tips & Tricks of Incognito lingual orthodontics'에 대해 강연하였다.
- 2015년 8월 7일 박영국 교수가 일본 오우대학에서 "프로페셔널리즘 교육"에 대해 강연하였다.
- 2015년 8월 16일 안효원 교수가 건강한 딸을 순산하였다.

소아치과학교실

- 2015년 3월 7일 최영철 교수 퇴임식이 리버사이드 호텔 6층 크리스탈 홀에서 열렸다.
- 2015년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술교류차 방문하였다.
- 2015년 4월 11일 춘계 장애인치과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열렸으며 김광철 교수가 학회장에 취임하였다.
- 2015년 4월 18~19일 최성철 교수가 대한소아치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구연발표를 하였다.
- 2015년 4월 28~5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소아치과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 2015년 6월 10일 최성철 교수가 '뉴스토피아 NT 피플'에 출연하였다.
- 2015년 6월 21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된 치과마취과 학회에 참석하였다.
- 2015년 7월 1~4일 최성철 교수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세계소아치과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 2015년 8월 강동경희대병원 개원 9주년 기념행사가 강동

경희대병원 별관 지하강당에서 열렸으며 소아치과가 9주년 우수 진료과로 선정되었다.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 2015년 3월 1일 권용대 교수가 교수로, 오주영 교수가 조교수(A)로 승진하였다.
- 2015년 3월 24일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수면학회에 권용대 교수가 참석하였다.
- 2015년 3월 27일 이덕원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에서 열린 International Symposium of Sleep Medicine에 참석하였다.
- 2015년 4월 12일 류동목 교수, 지유진 교수가 서울아산병원 생명과학연구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양악수술학회 제7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5년 4월 12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대한양악수술학회 제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권용대 교수가 "Respiration in orthognathic surgeray and orthodontics"에 대해 발표하였다.
- 2015년 4월 23~25일 일산 KINTEX에서 열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56차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 2015년 4월 23일부터 2015년 4월 25일 류동목 교수, 지유진 교수, 이덕원 교수가 일산 KINTEX에서 열린 제56차 KAOMS에 참석하였다.
- 2015년 5월 22일부터 2015년 5월 24일 이덕원 교수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Neuro Talk 2015 Organizing Committee에 참석하였다.
- 2015년 5월 29~30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골대사학회에 권용대 교수가 참석하였다.
- 2015년 6월 16~2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ern-Spiessl symposium에서 권용대 교수가 "3D pharyngeal airway evaluation after bimaxillary surger"에 대해 발표하였다.

치주과학교실

- 2015년 03월 11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치주학회 정기 총회 및 제1차 학술집담회에서 강경리 교수가 연제 'Fibrotic changes associated with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로 강연했다.
- 2015년 3월 20~21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과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잇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 2015년 04월 05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노년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에 참가했다.
- 2015년 04월 08일 채널A '나는 몸신이다'에 박준봉 교수가 출연했다.
- 2015년 04월 09일 MBC ' 기분좋은 날'에 박준봉 교수가 출연했다.
- 2015년 04월 17~18일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치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했다.
- 2015년 05월 22일 연합뉴스TV '김지수 기자의 건강 36.5'에 강경리 교수가 출연했다.
- 2015년 06월 01~0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European Association for Osseointegration 에 강경리 교수가 참가했다.
- 2015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Europerio 학회에 허익 교수, 신승윤 교수가 참석하였다.

치과보철학교실

- 2015년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성복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 치과대학에서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과 고령-장애환자의 자석의치'에 대한 초청강연을 하였다.
- 2015년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성복 교수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IADR(국제치의학연구학회)에서 IRG(임플란트연구분과)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 2015년 3월 21일 부산대에서 열린 대한치과보철학회 부산지역 정기총회 및 학술집담회에서 권긍록 교수가 '붕괴된 교합고경의 회복'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3월 21일 대한디지털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연세대에서 있었으며, 김형섭, 배아란, 백장현 교수 및 전 의국원이 참석하였다.
- 2015년 3월 22일 백장현 교수가 서울대에서 열린 임상의를 위한 임상 ABC 세미나에서 '개원의가 알아야 할 prep'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3월 25일 권긍록, 노관태, 백장현 교수가 태릉선수촌 국가대표 주치의로 임명되었다.
- 2015년 4월 9~11일 한중일 보철학회가 일본 하코네에서 열려, 이성복, 권긍록, 김형섭, 노관태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김형섭 교수가 'Current Trends about Zirconia Restorations in Korea'을 주제로 강연, 노관태 교수가 포스터 발표하였다.
- 2015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세종대에서 개최된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 2015년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성복 교수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국제태권도학술대회에서 '스포츠치의학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 역할' 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 2015년 5월 29일 이성복 교수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대한치과감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치과병의원 소독 멸균실태 소개; 치과인증평가 확실히 준비하자." 표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 2015년 7월 3~5일 권긍록, 노관태, 백장현 교수가 오사카 치과대학 보철과 방문하였으며, 마에다 교수와 세미나 및 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
– 2015년 7월 30일 이성복 교수는 2015 러시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석하였고 태권도국가대표선수 마우스가드 지원사업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2015년 8월 29일 이성복 교수는 KAOMI(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하계특별강연회 에서 '임플란트의 부하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던 디자인 요소'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치과보존학교실

– 2015년 3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근관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장석우 교수가 강연하였다.
– 2015년 4월 18일 박상혁 교수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보존분야에서의 레이저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5년 4월 26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접착치의학회 제 11회 학술대회에서 장지현 교수가 "유동성 Bulk-fill 레진, 제대로 알고 쓰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4년 5월 9~10일 코엑스에서 열린 SIDEX 종합학술대회에서 최경규 교수가 강연하였다.
– 2015년 5월 29~30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치과보존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5년 8월 3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접착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경규, 김선영 교수가 강연하였다.

안면통증 · 구강내과학교실

– 2015년 3월 21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 춘계학술대회' 에서 홍정표 교수가 '바이오항균치약의 개발'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 2015년 4월 11일 경기도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어규식 교수가 '턱관절장애의 치료, 약물요법/물리치료, 운동요법, 악관절고착해소술, 탈구정복술'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 2015년 5월 26일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The New Horizon of Orofacial Pain' 을 주제로 전양현교수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관련하여 덴탈투데이, 덴틴, 덴탈포커스, 주간치학신문, 덴탈아리랑, 건치신문, 데일리덴탈, 치과신문, 치과의사신문에 지면기사가 실렸다.
– 2015년 7월 8일 강수경 교수가 '라디오 주치의 이충헌입니다' 에 '입냄새' 로 출연하였다.
– 2015년 7월 11일~12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회 턱관절장애 연수회' 에서 어규식 교수가 강연하였다.
– 2015년 7월 25일 원광대대전병원에서 열린 제 2차 전공의 교육에서 '측두하악장애 원인' 어규식 교수가 강연하였다.
– 2015년 7월 28일 강수경 교수가 '[행복 업그레이드 건강학] '턱관절 장애' 생활습관만 바꿔도 치료 쉬워진다' 건설경제신문 지면기사에 게재되었다.

Imperial College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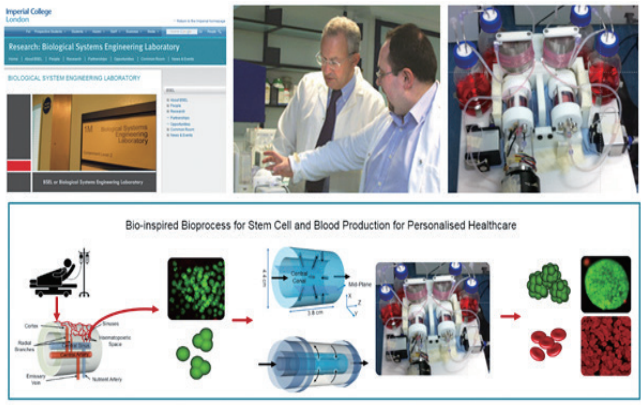
Imperial College London은 런던의 South Kensington에 위치하고 있는 굳이 말하자면 왕립대학교이다. 먼저 영국의 대학 시스템에 대해 말하자면 영국대학의 90% 이상이 국립대학이며, 국립, 시립, 왕립대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왕립대학교라 하면 왕족이 대학의 주인이고 졸업식 등의 공식적인 행사에 여왕을 비롯한 왕족들이 참석을 하게 된다. 그 이유로 Imperial College London 대학은 런던에서도 물가가 비싼 South Kensington에 위치하지만 일년에 1파운드의 토지사용료만 형식적으로 내고 있다. 대학 이름 중에 King, Queen, Imperial 등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대학들은 왕족이 주인이라고 보면 된다. 영국의 대학들은 주로 College가 기본단위이며, 런던에 있는 몇몇 College의 연합체를 University of London라 한다. University of London이라 하면 Headquarter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실체가 있는 대학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Oxford University 또는 Cambridge University 또한 실체가 있는 대학교가 아닌 Oxford지역과 Cambridge 지역의 College들의 연합체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학이름을 대기보다는 영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College를 나왔냐고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Imperial College London은 원래 Imperial College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라는 이름으로 University of London에 속해있었으나, 2008년쯤 대학의 규모가 커지며 University of London연합체에서 탈퇴하고 독립적인 대학으로 운영되며 Imperial College London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주로 이과대학, 공과대학과 의과대학으로만 이루어진 특화대학이다. 총 3개의 캠퍼스를 가지면 런던 곳곳에 5개의 대형병원을 의과대학으로 가지고 있으며 총 1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에 Tanaka Business School을 설립하면서 Techno-MBA과정도 생겼다. Imperial College London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건물은 Royal School of Mine으로 이름에서 유추되듯이 식민지 시대에 외국에서 강탈해온 광물들을 연구하기 위해 왕실에서 세운 대학교라 한다. 여담이지만 영국에 있는 많은 박물관들이 입장료를 받지 않는 이유도 자국의 유물이 30%를 넘지 못해서 무료로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3년에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처음 영국에 발을 디뎠을 때 Imperial College London 바로앞에 위치한 웅장한 건물의 자연사박물관을 보고 대학인줄 알고 좋아했으나 그 뒤에 공장 같은 허름한 건물들이 대학인걸 알고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이 당시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들은 얘기는 아직도 내가 연구를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큰 지침이 되는 것 같다. 오리엔테이션시 학교 관계자가 나와서 한 첫마디가 "밤 늦게까지 연구하고 공부하지 말고 또한 주말에 절대 학교에 나오지 마세요" 라는 것 이었다. 당신들은 머리를 쓰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쉴 때 푹 쉬고 항상 brain을 refresh한 상태로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일까? 매주 수요일은 sports day라하여 3시에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9 to 5의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머지 여가시간에 다양한 activity를 즐기고 가족과의 시간을 중시여기는 것 같았다. 박사과정동안 근무시간에 잠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하는 영국애들을 볼 수 없었으며, 하루는 너무 졸려 잠시 책상에 엎으려 있었더니 주변 동료들이 오가며 어깨를 치고 물어보았다. "어디 아프냐

고". 영국동료한테 언젠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 "너희들은 참 삶을 즐기며 사는 것 같다고" 영국동료가 얘기하길 영국도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한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왔더니 이혼률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영국정부에서 결단을 내려 일의 비중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삶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많은 오랜 시간을 일해야 일을 잘하는 것으로 여기는 한국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으며, 일을 할 땐 intensive하게 하면서도 삶을 즐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지금도 이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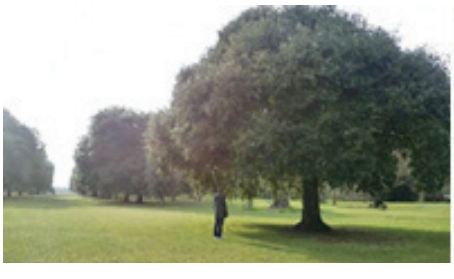
4년 정도의 박사과정을 마치고 Harvard 대학에서 일년 정도의 Post Doctoral Fellow를 한 후, 2009년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악안면생체공학교실에 임용이 되었고,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연구년이 되었다. 연구년을 어디서 보낼까 고민하던 중, 영국교수로부터 한국-영국 정부가 만들어놓은 Project를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운이 좋게 선정되어 연구년을 다시 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보내게 되었다. Integrated Bioprocess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artificial blood를 만드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제로 이와 연관된 논문을 읽고 공부를 했다. Visiting Scholar는 실험실에서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었고,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영국교수가 나에게 맡겼다. 학교의 연구실에서 논문을 읽고 또한 영국교수가 맡겨놓은 논문을 쓰고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학생이 찾아와 discussion을 요청했다. 자기 자신의 연구방향이 확고하지만 때때로 실험상의 더 나은 방법을 묻곤 했는데 이에 대답하기 위해 논문을 많이 찾고 읽었던 것 같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얘기를 나눌 때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자기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Pride가 매우 강하고, 또한 그러한 Pride를 가지라고 대학에서 교육을 시킨다. 예전에 박사과정때 지도교수가 한 얘기가 생각난다. "네가 하고 있는 실험은 이세상에서 네가 제일 많이 알고 있으며, 누가 물어보더라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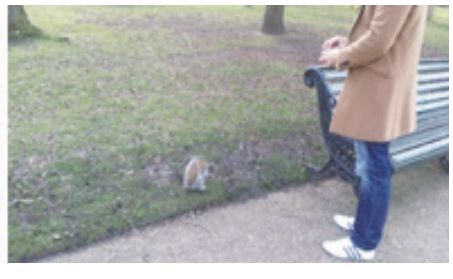


그래서 그 학생과 discussion을 할 때도 실험방법에 대한 조언은 해주지만 실험의 잘잘못을 얘기할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언급을 해야 했고, 그 잘못된 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그 점을 찾아가도록 유도해줘야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다행이 연구는 잘 진행되어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를 가지고 학생은 외국학회에 발표를 하고 논문을 쓰게 되었다.

박사과정때도 걱정했던 근무시간 이외의 여가시간에 뭘 해야할 지가 또 걱정거리가 되었다. 박사과정때 가본다고 생각만 하고 가지 않았던 버킹검 궁도 가보고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박사과정때도 그랬고 연구년 중에 보냈던 여가시간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Hyde Park에가서 다람쥐들에게 땅콩을 주는 것이었다. 여기저기 나무에서 내려와서 땅콩을 받으러 오는 다람쥐들을 보고 있으면 잠시나마 맘이 편해지고, 한국에도 이렇게 편히 쉬고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공원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영국에서의 박사생활 때도 느꼈지만 이번 연구년을 잠시 다녀오면서 또 느낀 점은 바쁜 와중에도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있는 것이 연구를 할 때나 일을 할때도 크게 나를 refresh해주고 오히려 능률을 더 높여준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많이 듣는 소리지만 "일할 때 하고 즐길 때 즐겨라~" 쉬운 말이면서도 참 지키기 어려운 말이다. 아무튼 영국에서의 짧았던 연구년은 다시 한번 삶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글 · 사진 악안면생체공학교실 황유식 **편집**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이정우





University of California in Berkeley
장기 연수를 다녀와서

UC Berkeley는 San Francisco 국제 공항에서 자동차로 북동쪽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Bay Bridge를 건너서 주로 가게 되어 있다. UC Berkeley는 10개의 California대학 중의 하나로 가장 먼저 세워졌다고 한다. 흔히 버클리 사람들이 Cal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모두 Cal이라고 하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UC Berkeley가 가장 먼저 세워진 학교이고, 대표 주립대라서 그 애칭을 쓸 수 있는 것이란다. 한국에서는 그 지역을 San Francisco 인근이라고 해야 어디인 줄 알지만, 미국인들은 그 지역을 Bay Area라고 부른다.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서 오클랜드, 실리콘 벨리로 유명한 산호세 지역에 걸쳐 넓게 bay가 들어와 있는 특징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불리고 있으며, 지형적인 특징 때문인지 매우 쾌적하고 살기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1년 내내 겨울 1-2달의 우기를 제외하고는 요즘에 보는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같은 날이 많이 보인다.

UC Berkeley는 핵무기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학교로, 사이클론 입자가속기를 발명한 곳이다. 현재는 주변주거지역에의 영향 때문에 사이클론 입자가속기는 없어졌으나, 내가 주로 주차한 곳이기도 했던 버클리 윗쪽 언덕에는 cyclotron Rd.라는 지명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 UC Berkeley와 Stanford University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쳐 지는 데, 그 만큼 두 학교가 여러 학문 면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매년 4월이면 버클리와 스탠포드에 있는 한국인들이 테니스시합을 하는 데, 삼성에서 후원하는 매우 큰 행사이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나도 참여하였는데, 입상 문턱에서 못 올라가고 확률 높은 경품추첨에도 뽑히지 못했으나, 참가상품으로 주는 질 좋은 점퍼와 평소에는 받지 못하는 식구들의 뜨거운 응원 때문인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낸 것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나는 일년 동안 Department of Bioengineering 의 연구소에서 주로 생활을 하였다. Nanostructure 개발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이곳에서 fundamental한 연구들을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게다가 주변에 나무가 우거져 있으며,

버클리 hill 위에 있는 도로에서 내려다본 버클리 전경, 멀리 bay bridge와 golden gate bridge가 희미하게 보인다. 필자에겐 선명히 보인다^^

다람쥐와 사슴들이 출몰하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갖춘 곳으로 붉은색 금문교를 내려다보며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아침마다 환상적인 기분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싶어서 방문한 곳이었지만, 처음에는 미국에서의 연구는 속도가 꽤 느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면, 어떤 실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그 전에 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자주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스케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실제로 장비를 사용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연구시설이나 장비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질 좋은 실험 결과들이 나올 지도 모르겠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고 시간이 충분하고, 아이디어가 좋으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대박(?)의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춰져야 하기에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버클리 대학은 여느 유명 미국 대학들처럼 도서관이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았다. 도서관이 군데군데 있었으며, 원하는 책과 저널들의 소장량도 많았고, 이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었다. e-book, 전자 저널의 이용도 편리하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 UC Berkeley를 방문하면 많은 학생들이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빈둥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모습이 부럽게 보였으나, 실제로 많은 학부 학생들이 학년 진급을 위해서 강도 높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학년말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학생들이 알몸으로 캠퍼스안 달리기를 한다는 전통을 들었으나,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그런 진풍경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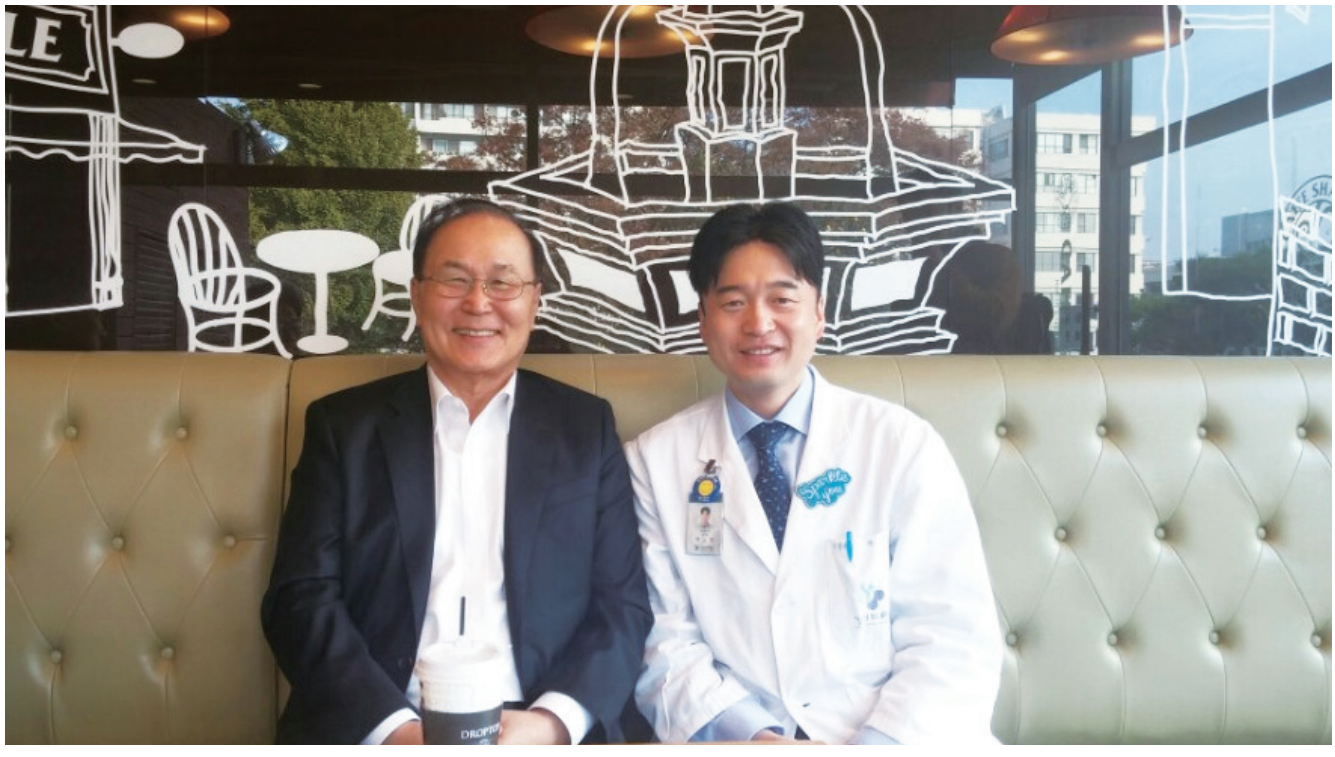
미국 대학에서의 업무연락과 소통은, 공식적이든 개인적이든 거의 100% 이메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학교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회사와의 소통도 전화보다는 이메일이 우선이다. 전화는 해도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웬만해서 받을 사람이 없는 듯 하다. 시간이 며칠 걸리긴 하지만, 이메일을 하면 답장은 꼭 온다. 아마 고객의 문의 메일에 답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업무 수행의 한 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도 개인의 사적인 시간을 존중하면서, 계획된 스케줄대로의 학사일정과 연구일정을 수행하기에 이메일은 참으로 적당한 수단인 것 같았다. 물론 우리도 이메일을 주로 사용하지만, 그 의존도에서 개인적으로 큰 차이가 느껴졌다. 교수나 학생이 바로 옆방에 있다 하더라도, 전화나 말 한두마디로 재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급한 일도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또한 교수든 포닥이든 대학원생이든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가장 효율적이면서 노력이 적게 들어가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개인의 역할을 나누고 본인의 일을 한다.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대개 만나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offline보다는 online 상에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기고, 신속한 반응을 요구하는 문화에서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의욕이 저하되고, 쉬이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두서없이 짧은 Berkeley 연수기를 작성한 것 같다. 지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버클리에서 보내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고 명문대학에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이 글에서는 쓰질 못했지만, 미국 곳곳의 웅장한 대자연과 아름다운 도시를 탐방하는 여행 또한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었다.

버클리에서의 1년은 연구자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간과 환경, 사람을 잘 organize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교훈을 먼 미국에서 새삼 느낀 것 같다. 또한 버클리에서의 1년은, 소위 말하는 명문학교에 있으면서 내가 속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혹시 우리가 전통이니 관례이니 하는 모습들로, 개인의 사생활도 학교의 발전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학교의 구성원이 존중 받는 다는 느낌을 갖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지며, 우수한 연구자들이 더욱 존경 받는다면, 우리 학교도 어느새 명문학교의 이름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글 · 사진 치과보존학교실 김선영 **편집** 악안면생체공학교실 이재형

이기수 교수님 인터뷰



교수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교수로서의 삶, 현재 정년퇴임 후의 삶이 많이 다르신지요?

비교가 좀 어려워. 예를 들어서 논문 안 써도 된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거고. 나머지는 자유롭다는 거.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고. 뭐 알면서 다.

교수님은 늘 건강하고 기운 넘쳐 보이십니다. 건강관리를 따로 하시는지요?

일주일에 4번쯤 하루에 8km씩 걷고 있어. 몸이 좀 피곤하면 4km만 걷지. 이렇게 걸어보면 서울이 정말 좁은 거 같아. 우리 집에서 잠수교까지 8km 정도야. 빨리 걸으면 1시간 30분 정도 걸려. 요즘은 추워져서 잘 안 나가기 시작했어.

여행은 자주 다니시는지요?

여행은 경제적인 부분과 많은 관련이 있지. 교수는 정년 이후에도 부자가 아니야. (일동 웃음)

정년 이후의 삶을 위해 특별히 준비를 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우선 경제적으로 대비를 해야지. 연금이 도움이 돼. 교직이나 공무원의 노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연금이야. 친구는 기자를 쭉 해왔는데 연금이 70만원 밖에 안 된데. 일반 회사는 퇴직금 받는 것으로 끝나고. 그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거야. 교직에 있을 때는 연금 내는 것이 생활에 영향을 안주니까 퇴직연금과 교원 공제처럼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들어야 해.

특히 개업 의사들도 노후 준비를 해야 돼. 아무도 안 도와줘. 원장들은 자기가 건강해야 일을 하거든. 원장이 아파서 병원을 쉬게 되면 누가 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겠어? 수입 구조를 보면 최고를 찍고 나서 점점 감소하여 폐업을 하고 나면 끝이야.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 100세까지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 신문에서 140세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어. 결국은 여건만 허락하면 장수할 수 있단 말이지. 우리 교수들은 65세 정년인데 퇴직을 해도 몸은 건강한데 할 일이 없어서 곤혹스러워. 퇴직 후에 할 일이 없으면 엄청나게 무료하고 화가 나. 할 일을 만들고 산에도 가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하면서 바빠져야 해. 그러면 분노가 다 없어져.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못 견디면 분노하다가 병이 생겨. 운동이든 뭐든 움직여야 해. 며칠 전에는 내가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반창회를 하자고 했어. 이렇게 규칙적으로 할 일을 찾아야 해.

재능기부도 좋아. 누가 필요로 하면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

지. 정기적으로 하면 잡념이 다 사라져. 그래서 내 재능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려고 해. 건강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3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재직하셨는데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쁘거나 슬펐던 일을 말씀해주세요.

너무 기뻐서 흥분하거나 너무 슬퍼하는 일 없이 순탄하게 사는 것이 교직이야. 연구나 목표를 달성해서 기뻐하면 그게 행복이지. 작은 논문을 냈는데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기쁘고, 뭐 그런 식으로 썼냐고 하면 참담하고. 역시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거 같아. 주위에서 칭찬하면 행복하고 주위에서 비판하면 슬프고.

옛날에 처음 임용되었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었었어. 특히 강의 슬라이드 만들면서 몇 년 동안 힘들었지. 환자도 봐야 되고 논문도 내야 되고. 그래서 초창기 10년간은 내 생활이 없었지. 조금 시간나면 수련의들하고 술도 마셔야 되고.

그 후에 조금 시간이 났는데 그 때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몰랐어. 교육과정을 만들 때도 문헌을 통해서 아는 정도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겠다. 그런 걸 조금 알거 같아. 어렵지만 방법을 생각해 낼 수도 있고. 그 때는 정말 잘 몰랐어. 다 끝나고 나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치과에서 교육이 문제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 우리 치과대학은 특성이 테크니컬 교육에 가까워. 전국 대학에서 PBL을 하는데 그렇게 머리로, 언어로 사물을 이야기하거나 하는 직업은 아니야. 우리는 지식을 손을 통해 구강에 구현을 해내는 직업이지. 머릿속 지식을 말로 나오게만 가르치는 건 잘못 되었어. 지식 측면에서는 학교 다닐 때 듣는 강의만으로도 개원할 정도는 된단 말이지. 하지만 손이 문제야.

처음 근무하셨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바뀌었다고 보이시나요?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우리과 세미나는 정말 발전했어. 수련의들 세미나 정말 잘 하는 것 같아. 개념이 아직 덜 잡힌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발전했어.

시설 측면에서도 많이 발전했지. 우리 교실에 프로젝터가 없어서 내가 샀었지. 컴퓨터도 샀고. 그 당시에 프린터가 없어서 타이프라이터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타자를 쳤었지. 도트 프린트 밖에 없어서 글씨가 흐려보였는데 타이프라이터를 쓰면 글씨가 잘 보였지. 그런데 논문 2편도 못 쓰고 고장이 나더라고. 카메라도 없어서 내가 샀었지. 집에서 돈 못 번다고 야단맞으면서 샀었지. 굉장히 열악했었어.

AJODO, AO 논문들도 내가 직접 샀어. 그 때 우리나라 국립도서관에도 치과 관련 책들이 별로 없었어. 서울대학교에나 예전 미군정에서 기부한 치과 관련 잡지들이 있었지. 1970년대 전반까지는 문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 그러다 점점 좋아졌지.

병원 지하에 치과대학이 지어지면서 한 번 발전하고, 치전원 건물이 지어지면서 또 발전했지. 옛날 시설을 여인숙에 비교하면 지금 시설은 거의 7성 호텔 급이야.

마지막으로 젊은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자기 일을 성의껏 적극적으로 하면 미래가 밝을 것 같아. 어느 분야든 비전이 예전만큼 그렇게 밝지는 않아. 그래도 입시할 때 보면 경쟁률이 높지. 의사처럼 면허가 있는 직업은 일반 직업에 비해서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또 수직된 조직 구조에 속해있지 않고 다른 병원의 원장과는 수평적이니까 종속적인 면에서 생기는 심리적인 문제는 적은 편이지. 하지만 과거처럼 비전이 밝지는 않아. 그래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면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공만이 행복은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하는 것이 행복이지.

요즘은 내가 정년퇴임 하고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이건 우리들의 숙제야. 행복해진다는 말처럼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 나는 요즘 행복해..

글 · 사진 · 편집 치과교정학교실 박기호

치과보철학 교실 –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전공주임교수 권긍록 교수

전체 구성
수련의(회기 11명, 강동 5명)
치과위생사(회기 4명, 강동 3명)
치과조무사(회기 2명)

1. 교실소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 보철학 교실은 1971년, 경희대학교 부속 치과병원의 개원과 함께 개설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44년간 구강 및 주변영역의 조직이나 치아 결손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연관 학문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철학 교실에서는 결손된 치아 또는 구강악안면 조직을 인공대체물로 수복하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써 환자의 상실된 기능과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과 보철학은 그 기능과 형태에 따라 크게 고정성 보철학과 가철성 보철학으로 나눌 수 있고 가철성 보철학은 다시 총의치 보철학과 국소의치 보철학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 외에 악안면부의 보철을 위한 악안면보철학과 치과임플란트보철학이 있으며, 악관절 질환이나 교합부조화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교합학과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인치과 보철학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2. 임상진료

치아를 상실하거나 손상 받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풍치나 충치 그리고 사고로 인한 외상 등이있습니다. 환자분들 개개인마다 치아상실의 요인이 다르고, 손상정도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환자분들이 보철과에 내원하면 환자 개개인에 따른 적합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통해,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 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관, 도재관이나 가공의치, 부분틀니, 완전틀니, 인공치아이식(임플란트), 악안면 보철, 악관절 치료 등이 있으며, 치과보철과에서는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치료방법, 기간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한 충치로 신경치료를 받거나 외상으로 인해 치질 손실이 큰 경우, 치아의 모든 면을 삭제하여 금속 주조체로 전체를 둘러싸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새롭게 수복할 때 원래의 자연치아와 비슷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금속 하부구조 위에 치과용 도자기(도재)를 올려 치료하거나, 특히 심미적 요소가 더욱 요구되는 부위에서는 치과용 도재만을 이용한 완전도재관을 이용하여 수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료의 발달로 과거보다 지르코니아 수복물의 물리적 특성이 향상되어 전치부 뿐만 아니라 구치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응증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치아 모양으로 만든 인공 재료를 손상되거나 변형, 변색된 앞니에 부착시키는 것으로 치아 표면을 얇게 삭제하고 본을 떠서 라미네이트 수복물을 만든 후, 치아를 산으로 부식시키고 나서 접착시키는 시술입니다.

1개 이상의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는 주변 치아를 삭제하여서, 상실된 부위와 함께 고정식으로 연결하는 브릿지 형태로 수복하거나 상실된 치아 부위만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수복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는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어서 고정식으로 연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데, 착탈 가능한 형태로 제작한 틀니로 남아있는 치아에서 유지력을 얻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상실 치아 수, 상실부위, 잔존치아 및 치아 상실부위의 상황에 따라 의치의 모양, 크기 등이 다르며 종류가 다양합니다.

본과에서는 자석 틀니, 이중관 틀니 등 다양한 틀니를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적용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전부 상실된 경우에는 완전틀니로 안모 및 심미성, 저작, 발음 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임플란트와 연조직 지지가 복합된 가철성 보철물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의 뼈에 인공 매식물을 매식하여 심미성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틀니를 끼기 싫어하거나 자연치를 깎는 것을 싫어하는 환자에게 자연치아처럼 보이면서 고정된 인공치아를 치아 상실 부위에 수복해주는 방법으로 현재는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각광받는 치료법입니다. 외상이나 구강암에 대한 외과적 수술로 인하여 악골과 치아 일부가 상실된 경우에는 악안면보철을 통해 기능, 심미 등을 수복해줄 수 있고, 턱관절이 아프거나 저작이 곤란한 경우 위, 아래 치아의 맞물림 및 주위 근육에 대한 진단을 통해 통증의 원인을 찾아, 입안에 착용하는 장치치료 및 근육 치료 등을 통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3. 연구분야

치과보철과에서는 진료영역 전반에 걸친 치료 술식과 재료, 장비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D 구강 스캐너와 3D CT 등을 이용한 디지털 치의학이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치의학은 일반 보철뿐만이 아니라 심미보철, 임플란트에도 치료계획 수립에서 시술, 기공물 제작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정밀도 향상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본과에서도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보철술식과 CAD/CAM denture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환자에 대한 틀니, 부분틀니 그리고 임플란트 보험이 이미 시작되어 보철보험 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보철 치료의 빈도와 보철물의 사용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무치악 환자에 대한 성공적인 보철 치료를 위한 BPS 및 하악 suction denture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해서도 short implant와 mini implant에 관한 연구, 임플란트와 상부 보철물에 관련된 다양한 재료적,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질병 유전체 연구를 총의치학에 접목시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DNA를 분석하여 무치악 환자의 치조제 흡수율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 보철 치료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4. 2015년 1학기 치과보철학 교실 학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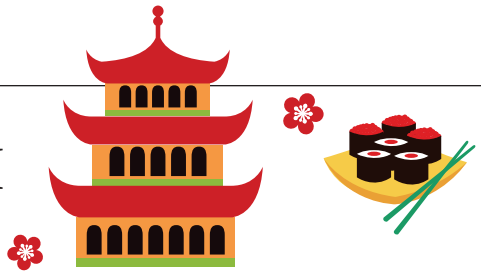
3/10~11 미국 하버드대학 치과대학 초청강연(이성복 교수)
3/11~14 미국 보스턴 IADR(국제치의학연구학회) 연자 및 좌장 초청(이성복 교수)
3/17 치과보철학교실 대학원 개강식이 있었다.
3/21 부산대에서 열린 대한치과보철학회 부산지역 정기총회 및 학술집담회에서 권긍록 교수가 '붕괴된 교합고경의 회복'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3/22 백장현 교수가 서울대에서 열린 임상의를 위한 임상 ABC 세미나에서 '개원의가 알아야 할 prep'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3/25 이성복, 권긍록, 노관태, 백장현 교수가 태릉선수촌 국가대표 주치의로 임명되었으며, 백장현 교수와 R2 신세준, Int. 최영균 방문 진료하였다.
4/8 2015년도 1학기 논문 공개 발표가 있었으며, R2 오진아 발표하였다.
4/18~19 2015년도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있었으며, R3 김주형, 박민서, 오진아, 고은진 구연발표 하였고 서진호 포스터 발표 하였다. 토요일 학회 후, 샹그라에서 경보회 선후배 간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5/9~10 러시아 첼랴빈스크 국제태권도학술대회 강연(이성복 교수)
5/16~17 폴란트 크라루프 제1회 네오유로 심포지엄 초청강연(이성복 교수)
5/29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대한치과감염학회 학술대회 참석, 강연(이성복 교수)
7/3~5 권긍록, 노관태, 백장현 교수가 오사카 치과대학 보철과 방문하였으며, Prof. 마에다와 세미나 및 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
7/18 우이형, 백장현 교수, 전임의 이현종 및 의국원 양평으로 자전거 일주하였다.
8/21 보철학회 교육 지도의 워크샵이 대전 유성 호텔에서 있었으며, 권긍록, 김형섭, 노관태, 백장현 교수가 참석하였다.

5. 교수진(주진료과목)

- **우이형 교수** : 고정성보철, 악관절 기능 및 교합장애, 임플란트(인공치아) 보철, 심미보철
- **이성복 교수** : 턱관절 기능 및 교합장애,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 심미보철, 스포츠 치의학, 자석 치의학
- **권긍록 교수** : 총의치보철, 악관절 기능 및 교합장애, 임플란트(인공치아) 보철, 특수보철
- **김형섭 교수** : 일반보철, 임플란트(인공치아) 보철, 심미보철
- **이석원 교수** : 임플란트 보철, 심미보철, 가철성 의치보철
- **배아란 교수** : 임플란트 보철, 심미보철, 특수보철
- **안수진 교수** : 임플란트 보철, 심미보철, 가철성 의치보철
- **노관태 교수** : 총의치보철, 악관절 기능 및 교합장애, 임플란트(인공치아) 보철, 특수보철
- **백장현 교수** : 총의치보철, 임플란트 보철, 심미보철, 특수보철
- **박수정 임상교수** : 임플란트 보철, 심미보철, 가철성 의치보철
- **채 민 임상교수** : 임플란트 보철, 심미보철, 가철성 의치보철
- **이현종 전임의** : 일반보철, 임플란트 보철, 특수보철

글 · 사진 치과보철학교실 백장현 **편집**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조영아

일본의 식문화 Ⅱ



짬뽕과 라면

중국집에서 흔히 먹는 메뉴로는 짜장면과 짬뽕이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이거니와 어른들도 물론 좋아한다. 그 중 짬뽕은 어디에서 시작하였을까?

몇 년 전에 모 식품회사에서 '나가사끼 짬뽕' 라면을 발매해서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여기서 짬뽕이 태어난 곳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짬뽕은 나가사키 출신이었던 것이다. 나가사키는 일본 개항지 중 하나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이었다. 물론 15세기 화란상인(네덜란드)들이나 포르투갈 상인들이 장사를 하러 들어왔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19세기 말 중화요리점 시카이로(四海樓, 사해루)의 주인이었던 진평순(陳平順)이 그곳에 살고 있던 중국인 노동자, 학생들이 식생활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싸고 양 많은 음식을 만들었다고 한다. 복건성 출신이 진사장은 고향의 요리를 기초로 만들었다 하나 다양하게 변한 현재의 짬뽕의 모습에서 이 음식의 원래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짬뽕은 이후 나가사키가 있는 큐슈섬을 중심으로 일본전역에서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 짬뽕은 화교들에 의해 소개된 후 국민음식이라고 불러도 좋을만큼 인기있는 음식이 되었으며, 나가사끼 짬뽕과는 다르게 고춧가루가 들어가있고, 국물을 내는 방법이 달라 맛이 다른 특징이 있다.

라멘

라면은 배고플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 라면은 일본의 닛신식품에서 1958년에 만들어졌다. 식품회사를 설립한 안도 모모코씨는 1958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서 개발하였고, 1971년 컵라면을 개발하였다.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에는 라면박물관이 있어 개발 당시 안도씨가 기울였던 노력을 볼 수 있다.

라멘이라고 하면 인스턴트 면과는 다르게 생면을 국물에 넣어 먹는 면요리를 의미한다. 에도막부 말에 개항한 요코하마, 코베, 나가사키, 하코다테 등에서 살기 시작한 중국인들이 만들어 먹던 면요리를 일본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한다. 1910년 동경 아사쿠사에 라이라이칸이라는 중화요리집을 열고 요코하마에서 요리사를 초빙하여 인기를 끌었다. 이 중 인기 있던 면요리가 난킨(南京)소바, 시나(支那)소바였으며 이것이 라멘의 원조이다. 라멘을 한자로 표기하면 拉麵이며 拉는 잡아 당겨 늘인다라는 뜻으로 칼로 자른 것이 아닌 뽑은 면을 가리킨다고 한다.

라멘은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데, 쇼유라멘(醤油, 간장), 시오라멘(塩, 소금), 미소라멘(味噌, 왜된장), 톤코츠라멘(豚骨, 돼지사골육수) 등은 흔히 알고 있을 것이다. 스프(국물)에 어떤 양념을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쇼유, 시오, 미소 등으로 분류한다. 국물을 낸 재료에 따라 돼지뼈, 닭뼈, 어패류, 카레 등으로 나눈다고 한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라멘이 발달해 왔으므로 다 먹어보려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삿뽀로에서 먹었던 버터가 들어간 삿뽀로미소라멘이 기억에 남고, 돼지뼈 국물인 톤코츠라멘으로 유명한 후쿠오카에서 먹은 라멘이 특히 맛있었다.

이치란은 독서실같은 분위기라 혼자가도 남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일본에서는 혼자 밥 먹는 일이 많으므로 다른 식당에서도 눈치보지 않고 먹을 수 있긴 하다.

■ **요코하마 라멘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raumen.co.jp/korea/

에키벤

에키벤(駅弁)은 역을 의미하는 에키와 도시락을 의미하는 벤토의 벤을 합성한 말이다. 에키벤이란 그 지역의 명물이거나 유명한 음식을 기차역에서 도시락으로 만들어 파는 것이다.

이어령 선생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에 의하면 도시락이라

는 것은 일본인이 추구하는 축소문화를 음식, 식탁에 적용한 것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벤토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이전에는 이러한 말과 개념이 없다가 일제시대에 들어온 개념이니 도시락보다는 입에 붙어있는 벤토라는 말이 더 친숙한 것이기에 그럴 것이다.

혹시 일본에 가서 기차여행을 하거나 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하게 되면 에키벤을 사서 먹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순위도 매겨져 있으니 내용이 마음에 드는 것을 구입하여 먹어 보자.

추천 도서인 박용민 씨의 '맛으로 본 일본' 이라는 책에서는 홋카이도 출장 시 이용한 침대열차에서 구입하여 먹어본 카니메시(게살 밥)이야기가 나온다. JR 홋카이도의 열차에서는 역무원이 카니메시의 예약을 받아서 그 역을 지난 이후 예약한 승객에게 판매를 한다. 하지만 저자가 탄 차량은 JR 히가시니혼 소속이므로 차내 예약을 받지 않는데, 직접 도시락회사로 전화를 걸어 회사직원이 직접 역 플랫폼에서 넘겨주어 맛있게 먹었다는 일화가 있다.

저녁 늦게 전철을 타면 맥주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가끔 도시락을 먹기도 한다. 심한 냄새가 나는 오징어와 함께 먹는다면 눈총을 받겠지만 도시락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신칸센을 탔을 경우는 에키벤이 유용하다. 우리나라 사정과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식당차가 거의 다 폐지되었다고 한다. 배고픈 여행객이 타지에서 맛보는 도시락도 경험해 보면 좋을 듯. 그리고, 남이 먹고 있으면 더 먹고 싶어지는 법. 여러분도 아시죠?

■ **참고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gurutabi.gnavi.co.jp/ekiben/

여기에서는 각 지역의 에키벤, 종류별 인기 에키벤 등이 게재되고 있다. 일본어 홈페이지이나 global site로 이동시 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http://kfm.sakura.ne.jp/ekib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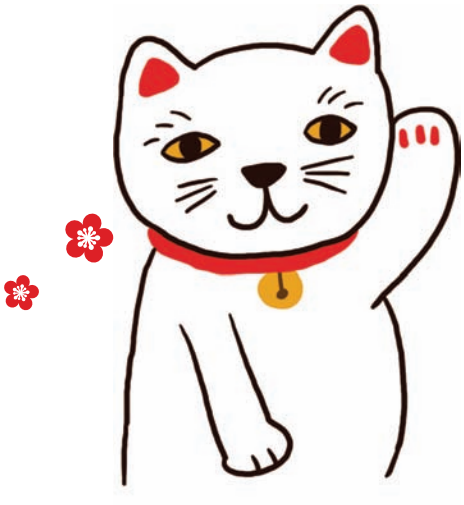
일본어만 있다. 번역해서 볼 수 있다. 자신이 먹어본 에키벤을 소개하였다.

추천 도서

- 맛으로 본 일본. 박용민, 헤이북스, 1판, 2014
-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어령, 문학사상사, 2판, 2008

간단하게 일본에 있을 때나 자주 방문하면서 먹어보았던 한정된 주제로 써 보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식문화는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그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데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

글 · 사진 영상치의학교실 김규태 **편집** 치과보철학교실 백장현



2015학년도 발전기금 입금 (2015. 08. 31 기준)

1억원 이상 안영자 이창진 ㈜덴티움 ㈜신흥

7천만원 이상 곽약훈 ㈜비스코덴탈아시아

5천만원 이상 김은철 이재광 치과대학동문회(지순준 외)

3천만원 이상 김학찬 전요한 김성기치과 굿윌치과병원덕천 압구정사랑의치과의원 치과대학대전지역동문회 ㈜지-씨코리아 ㈜모르페우스 굿윌치과병원하단 2006년도매칭펀드

2천만원 이상 고광수 고철수 김용래 문정기 박준봉 이명옥 오스템임플란트㈜

1천만원 이상 공희정 권영혁 김규남 김성욱 김승윤 김영훈 나성식 류동목 박영국 박양제 박주연 박창건 박태용 백두흠 변 욱 서광원 송요선 신응범 신한식 오구환 오우식 유성희 이광섭 이규원 이근혁 이기수 이두희 이성복 이상혁 이 윤 이한우 장상건 장지헌 정극모 정성민 조영욱 최대균 최효영 한만형 한정희 2004학년도매칭펀드 UIC시카고치과병원 경희치과병원 굿윌치과병원서면 오우대학 참조은치과병원 치과대학12회동문회 치과대학13회동문회 치과대학19회동문회 치과대학1회졸업생일동 치과대학22회동문회 치과대학2기동문회 치과대학3기동문회 치과대학6기동문회 치과대학9기동문회 치과대학수원지역동문회 큐플란트치과

8백만원 이상 김광철 김세영 김여갑 김인화 양승춘 이진용 ㈜악어미디어 화인치과병원

5백만원 이상 고광준 권긍록 권일근 김기태 김려수 김상일 김수철 김영진 김용준 김종환 김판식 김필수 김향경 김형찬 박기범 박능석 박도양 박상혁 박승훈 박용덕 박재홍 박태용 박희경 백동준 신 명 신제원 우이형 윤옥병 이 건 이명성 이상호 이성복 이원화 이현우 임호남 장건택 정규림 정용식 조재오 조준영 조해성 지유진 지찬동 최경규 최근락 최기운 최성백 최용석 최호근 허성윤 허 익 홍정표 황의환 황재상 치과대학16기동문일동 최신치과

3백만원 이상 강기현 강승훈 고봉진 구한미 권균원 권순용 권용대 권태훈 권호진 김 덕 김동호 김명환 김보혜 김석훈 김선규 김성용 김성환 김소현 김옥진 김우찬 김윤홍 김정희 김진철 김형남 김형섭 김형진 김효종 김훈회 마경화 박동진 박미애 박상규 박상규 박상기 박상혁 박성동 박수배 박희찬 백영완 백종은 부용철 성낙도 손세일 손원영 송창준 신민철 신민호 신완용 신의종 안민호 안희진 어규식 염상국 오범수 오병섭 오성산 오승훈 오화탁 우정석 우택호 우형식 유석규 유신종 유영선 유용균 유충현 유형열 윤덕상 윤인종 이건옥 이광희 이규용 이동식 이백수 이상래 이상태 이수인 이영준 이용호 이재천 이종태 이진표 이청재 임성빈 임성수 임순빈 임인학 장봉렬 장성진 장우익 장희웅 전양현 정동진 정병선 정순준 정연식 정운봉 정재규 정종혁 정창권 정 철 정철민 정형주 제한봉 조남성 조민구 조세종 조인교 조정근 조태희 조호구 주성숙 지유진 천강정 최병환 최유진 최재영 최정규 최현수 한승완 한용환 한 훈 홍성태 홍영안 김정수치과의원 동산치과의원 미담치과의원 우암치과의원 이치과의원 조재민치과의원 중앙치과의원 피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덴티움

2백만원 이상 권기열 김광철 김기문 김도완 김동기 김명진 김방수 김성진 김옥현 김 온 김인수 김재승 김정목 김정우 김종규 김지태 김춘진 김흥모 나긍균 노대현 류중균 모규엽 문재룡 문항진 박노희 박선영 박성근 박성원 박수진 박재현 손일수 송윤헌 신동진 신영림 신현택 엄영호 오인종 유경민 윤경도 윤석우 이규찬 이미경 이상복 이상철 이상훈 이은준 이정민 이종규 이준열 이창진 이필제 이해승 임태수 임흥재 장수일 전진학 정주성 조민우 조숭제 하정상 한기협 허정선 남포치과의원 부평청원치과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치과대학1기동문회 치의학전문대학원교정학교실전공의일동 평화치과

1백만원 이상 강기현 강정백 강한중 고진환 고천석 곽춘길 구국본 구본룡 구자경 구자룡 구재우 권수갑 기태석 길종선 김경용 김광희 김귀원 김문기 김미경 김봉현 김상석 김선욱 김선호 김성길 김성철 김세일 김수강 김수진 김영일 김용구 김원겸 김원겸 김인곤 김재구 김재오 김재일 김재철 김종호 김중종 김진호 김철중 김충길 김태형 김택청 김해근 김현호 김혜경 김홍기 나성식 나종일 나태돈 남병우 남재형 노영억 류경희 류 훈 문민연 문수인 문용환 민효기 박동원 박두종 박병걸 박병욱 박봉규 박상규 박상기 박상훈 박석범 박순건 박순정 박영수 박영주 박은기 박일해 박재석 박정용 박철제 박칠성 박 현 박현석 배영수 백상규 백영걸 변태진 사영철 서경숙 서남영 서영문 서윤원 성락진 송국현 송민재 송은면 송재만 신동건 신동구 신혜련 안광식 안근국 안병규 안장원 어수철 엄인석 오세웅 오세윤 오정진 오정환 오창근 오충영 오현미 원미영 유선렬 유인영 유주현 윤경도 윤동호 윤두근 윤민의 윤창구 이건종 이공훈 이광재 이교용 이긍호 이동규 이만섭 이병국 이병도 이병태 이상은 이상호 이성철 이세종 이세준 이승춘 이승택 이영규 이영근 이영석 이영식 이완규 이용호 이원섭 이원화 이원철 이인석 이재학 이재홍 이정열 이정헌 이종인 이천복 이충복 이태수 이태호 이화연 이흥기 이희정 임기효 임상욱 임종성 임천택 장상수 장영빈 장원종 장정태 장철민 장현주 장 훈 전석열 전장환 전종혁 정관희 정대현 정도영 정선모 정용복 정인교 정현근 정희일 조동석 조병도 조성국 조성열 조영진 조의현 조익주 조정현 조진호 지정호 지준순 차덕선 차애경 채영원 천무철 최명애 최상돈 최상호 최승규 최승현 최연석 최영범 최영철 최원재 최인식 최종우 최중설 최천영 최호영 하대주 한기림 한문식 한봉석 한정희 한창규 한휘철 허귀남 현원섭 홍선희 홍진표 홍해룡 황용구 2005학년도매칭펀드 경희치과의원 광산치과의원 구미공단예치과병원 구치과의원 뉴욕BNS치과의원 드림빌딩(서남영) 박상헌치과의원 발안치과 사람인치과의원 서산예치과 세영치과의원 송도드림치과의원 연산치과의원 용치과의원 웰니드치과의원 유티치과의원 윤인탁치과의원 이원준치과의원 임길웅치과의원 종로치과의원 청원치과의원 최완침치과의원 한수치과의원 함께하는치과

1백만원 미만 강남현 강대인 강승구 강주성 강칠규 강혜성 고건호 고영훈 고일혁 고창배 고 현 공선식 공순현 곽용훈 권구현 권정은 금구석 금미연 김경선 김광식 김교철 김남중 김동규 김명섭 김미경 김민성 김보균 김보라 김보선 김상균 김상우 김석용 김성일 김승일 김승일 김시석 김시원 김영기 김영득 김영택 김윤희 김일환 김장욱 김재수 김종헌 김철순 김태연 김현경 김혜정 김호진 김홍광 노은희 류창수 류호경 모덕진 문영훈 문희현 민관순 박건호 박경아 박경일 박금출 박기헌 박성규 박성규 박용호 박원규 박재춘 박준수 박지혜 박창훈 박춘배 반태환 배기창 배일환 배한익 백기현 백종욱 백 진 백효찬 변현홍 서경성 서재승 서찬호 소웅섭 송성국 신강섭 신동렬 신용문 신재창 양경돈 양광모 오나희 오승교 오승환 오유리 오정란 오현주 우승철 원현두 유지훈 유진석 유하균 유희승 윤여진 윤용섭 윤원용 이대승 이동현 이성만 이수미 이수영 이수옥 이승규 이시원 이연수 이영희 이을재 이정행 이정호 이지민 이지혜 이창규 이채숙 이한주 이헌우 이현경 이현식 이혜영 임경석 임병진 장영명 장영배 전성근 전영신 전찬덕 정남희 정민수 정성민 정성진 정연진 정연진 정의산 정지향 조규석 조성국 조영옥 조영주 조윤숙 최대영 최동훈 최문철 최성연 최승모 최창규 최현용 최호영 최희철 하지웅 하치양 한동인 한무현 한수희 한혜숙 홍동희 홍호철 황선달 황윤태 노치과의원 뉴욕치과 뉴욕치과의원 르네상스치과 모마치과 미소시티치과의원 석치과의원 성모치과 연수준치과의원 윤석우치과의원 이채동치과의원 제일부부치과 청담부부치과의원 최창규치과의원 프랜드치과의원 현대치과의원

동문회 소식 및 경조사

동문회소식

- 2015.03.04 서울 동문 구회장 간담회
  안민호 회장, 김봉현 총무, 최재용 총무간사
- 2015.03.05 동대문구 동문회 참석
  안민호 회장
- 2015.03.11 2015 정기 이사회
  동보성 개최
- 2015.04.19 연대 동창회 임원과의 만남
  안민호 회장, 김봉현 총무, 최재용 총무간사, 김소현 이사
- 2015.05.28 양천구 동문회 참석
  안민호 회장
- 2015.06.14 동창회골프대회
  개인전 우승 : 이성만 동문(16기), 단체전 우승 : 16기
- 2015.06.21 10개 치과대학 골프대회
  개인전 우승 : 이성만 동문(16기)
- 2015.07.09 대학 보직교수님과의 만남
  안민호 회장, 박능석 부회장, 김봉현 총무, 조선경 재무
  최재용 총무간사, 권태훈 이사
- 2015.07.24 치전원 등원식(오후 5시30분, 치대 지하강당)
  안민호 회장
- 2015.08.26 3,4학년 학생임원과의 만남
  안민호 회장, 박능석 부회장, 김봉현 총무, 조선경 재무
  김소현 이사

경조사 및 동창회원 근황 (2015.03.01 ~ 08.31)

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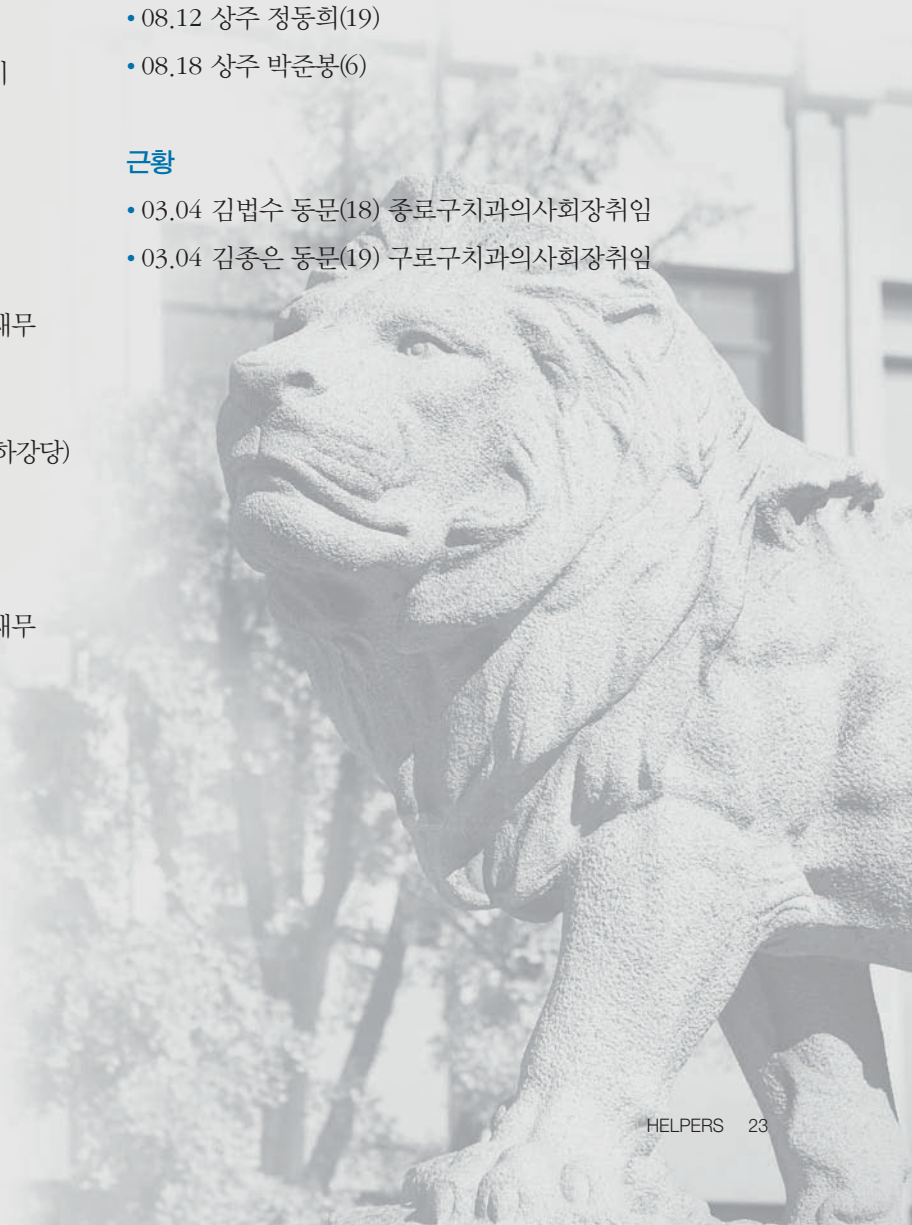
- 03.14 이근혁(10) 아들결혼
- 04.11 권균원(12) 딸결혼
- 04.11 신응범(2) 딸결혼
- 04.26 안민호(12) 아들결혼
- 07.26 박재홍(6) 딸결혼
- 08.29 한문식(12) 딸결혼

조사

- 03.23 상주 정규림(1)
- 05.01 상주 김현철(10)
- 05.07 김여갑(1) 장인상
- 07.21 상주 박순건(11)
- 08.12 상주 정동희(19)
- 08.18 상주 박준봉(6)

근황

- 03.04 김법수 동문(18) 종로구치과의사회장취임
- 03.04 김종은 동문(19) 구로구치과의사회장취임



HUMANISM

ESTHE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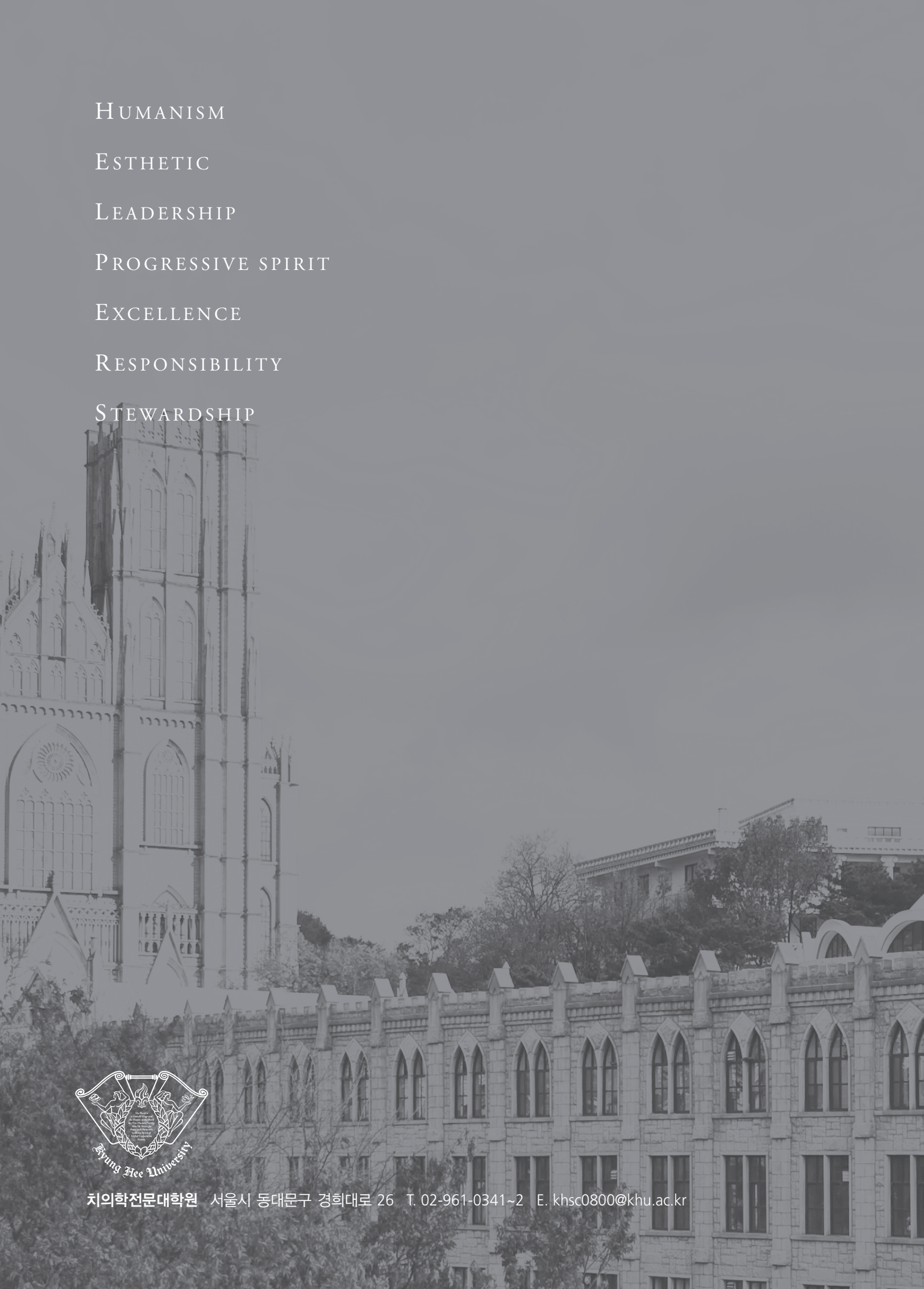
LEADERSHIP

PROGRESSIVE SPIRIT

EXCELLENCE

RESPONSIBILITY

STEWARDSHIP



치의학전문대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 02-961-0341~2 E. khsc0800@khu.ac.kr